

제주어의 활용과 보존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순덕

제주어 교육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제주어가 표준어에 비해 하위 언어이며 저급한 언어이며 품위 없는 언어라는 그릇된 언어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표준어는 표준어대로 제주어는 제주어대로 각각 별개의 언어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다.

1. 머리말

지역어의 역사성, 지역인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면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어는 언어학적 가치는 물론 제주문화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언어자원이라 할 수 있다.

제주사회에서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는 시점이라 본다. 외국어(특히 영어) 공용어화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제주어의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소멸되지 않게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후 특정 단체나 연구자 중심으로 제주어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일부의 관심으로 밀려나 있었으며 2011년 벽두에 유네스코에서 제주어가 '소멸 위기의 언어'로 등록된(2010년 12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평가해 주는 잣대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정말 귀중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이번에는 제주어가 사라질 언어 대열에서 살아남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제주사회 내에서 자생적인 언어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제주어의 활용 방법과 향후 보존 방안 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제주어의 활용

제주도는 2002년에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고, 2006년 7월 1일로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며, 2007년 6월 27일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다.

또한 2006년은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되었고, 2007년은 ‘제주민속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제주민속 관련 연구서를 발간하고 기념전시회를 하는 등 부대 행사를 추진했으며, 2006년 4월에 국립국어원과 국립민속박물관 공동으로 ‘제주지역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제주사회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어 조례 제정’ 등 제주어의 위상 정립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2007년 9월에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안」이 제정되는 등 2007년은 제주어의 가치를 재발견한 해이다. 또한 2008년은 유네스코가 ‘세계 언어의 해’로 지정해서 세계 곳곳의 언어 보존은 물론 소수언어의 사라짐을 염려했다.

그런데 이후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가시적 정책 추진이 미흡했으며, 이를 비롯기라도 하듯이 2010년 12월에는 유네스코에서 제주어가 ‘소멸 위기의 언어’로 등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발맞추어 여기저기서 제주어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충만해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제주어연구소’(가칭)를 별도 기구로 설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7년에 제정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서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가 구성되었다(2011년 4월).

이러한 분위기와는 별도로 1950년대부터 전문가 집단이 개별적으로 제주어 관련 자료를 구축해 왔으며, 여기서는 제주어로 채록된 구비문헌자료, 구술자료(공공기관 발간물 중심) 제주어 연구자료 등 구축 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향후 제주어 DB구축은 물론 제주어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 나오기 위해서는 <표 1>과 같은 자료 활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제주어 자료 편람

제 목	저 자	출 판 사	출판 연도	비 고
구비문헌 자료				
남국의 속담	진성기 편저	제주민속문화 연구소	1958	
제주도민요연구(上)	김영돈	일조각	1965	제주민요가 제주어로 채록된 자료집
국문학보(4~16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2~2004	학술조사보고서
남국의 수수께끼	진성기 편저	제주민속문화 연구소	1972	1958년 이후 조사한 자료 모음집
남국의 금지어 연구	진성기	제주민속문화 연구소	1972	1958년부터 1972년까지 조사한 자료 모음집
남국의 민담	진성기	형설출판사	1976	1956년~1962년 조사한 자료 모음집

남국의 민요	진성기 편저	정음사	1977	『제주도민요집』(1958년 이후 3권으로 발행됨)에 수록된 1,500여 수 중 400수를 발췌한 것이며 채록 시기는 1955~1961년
제주도무속사전	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남국의 무속서사시 :세경본풀이	진성기	정음사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1983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1981~1984에 채록. 『제주도부락지』에 실린 자료와 중복
백록어문(1~24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86~ 2007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도부락지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국어교육과에서 시행한 학술조사 결과물(1984~1988)
제주도부락지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1978/1981/1983에 조사됨
제주도부락지Ⅲ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1972~1974, 1985에 조사됨
제주도부락지Ⅳ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1975/1977/1989에 조사됨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	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제주도속담사전	고재환	제주도	1999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 연구소		2002	1994년 동김녕 문순 실덕 중당클굿 자료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김헌선·현용준· 강정식	보고서	2006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개정판	현용준	도서출판 각	2007	
제주도 옛말 사전	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2008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채록한 자료 중 『남국의 민담』(1976)에서 제외된 자료임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강정식·강소전· 송정희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소	2008	2006년 조천읍의 한 굿당에서 행해진 무속자료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한국학 협동과정 편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소	2009	
제주큰굿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전통문화연구소		2010	1986년 신춘리 김운수 심방집의 신굿을 채록하고 정리한 자료

양장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한국학 협동과정 편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소	2010	
구 술 생 애 자 료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4	
제주여성의 생애 :살았지만 살았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2006	
전통맥향 -제주여성무형문화재의 생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2007	
제주4·3사건 관련 구술자료				
이제사 말함수다 1/2	제주4·3연구소	한울	1989	
사삼사태로 반 죽었어, 반!	오성찬 편집	뿌리깊은나무	1991	
4·3은 말한다 1~5	제민일보 4·3취재반	전예원	1994~ 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제주4·3 50주년 학 술·문화사업 추진위원회 편	학민사	1994	
7·7만벵디 예비검속 희생자 자료집 -만벵디에 묻힌 진상과 증언	7·7만벵디유족회		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 들	제주4·3연구소	역사비평사	2002	
빠앗긴 시대 빠앗긴 시절 -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조성윤·지영임·허호준	선인	2007	
그들 속의 4·3	제주4·3연구소 편	선인	2009	
제주4·3	제주4·3연구소 편 허 영선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2009	
제 주 어 연 구 자 료				
제주도방언연구 (수정본) :자료편	현명효	태학사	1985	
제주방언연구 :자료편	박용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1988	
제주의 언어 1/2	강영봉	제주문화	1994/ 1997	
한국방언자료집 XI : 제주방언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95	
제주어사전/개정증보 제주어사전	현명효 외	제주도	1995/ 2009	
제주말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	2007	

3. 제주어의 보존

2000년대 들어와서 제주어의 가치가 부각되고, 사라지는 언어 대열에 끼면서 제주어 화자들은 염려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적어도 광복 후 지금까지 약 65년간 언어학자들이 개별연구를 하면서 지역의 언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를 다양한 형태로 건의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어쩌다 정부 차원에서 지역어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면 덩달아서 당장 귀중한 문화재를 보듬으려는 시도를 했으나 구체적인 노력 없이 시들해지다가 2010년 12월 유네스코에 ‘제주어가 소멸 위기의 언어’로 등록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2011년 1월) 제주지역에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부응하여 제주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제주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칭을 개정하는 등 당장 보존정책을 펴 않으면 제주어가 사라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다행히 제주어 화자들은 제주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멸되지 않게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어 ‘제주어연구소’의 설립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며 기초분야를 단단히 구축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변죽만 울릴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라도 제주어의 위상과 가치를 인식하고 언어공동체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점에서 단기, 중기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제주학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주어는 제주학의 한 분야이므로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언어는 문화의 주요소이며 제주어는 제주 문화를 생산하는 기록주체이므로 제주학 연구의 핵심분야다. 그런 점에서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어의 자료구축, 활용, 보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책화할 수 있다.

언어 정책은 크게 보면 한국어이고 작게는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국어나 지역어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지역어를 활용하고 보존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노력이(변형을 최소화) 더 중요하다고 본다. 즉 통신문어가 난무하고, 외국어의 범람 등으로 표준어 역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언어는 변하고 소멸되는 게 자연의 이치이며, 보존 또한 자연의 이치이나 제주어에는 제주인의 문화가 녹아 있으므로 정체성 찾기 측면에서라도 제주어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 즉 제주어 보존이 제주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 예로 제주어를 사용하고 보존하는 방법은(여기서 보존이란 유형문화재처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로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전수하는 것을 말함) 제주어를 최대한 채록, 정리하는 것이다. 보존이라 하면 화석화된 것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언어는 사회성과 역사성을 띠므로 옛 모습 그대로 발음이 온전히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며 활용하면서 보존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제주어는 제주어 화자들의 공통어이므로 제주어 나름으로 체계화되고 규범화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어 교육이 필요하다(쓰기, 읽기 등). 제주어 교육의 대상은 넓게 잡아 제주지역과 제주어를 배우려는 모든 사람이 되겠지만 학교교육과 같이 체계성을 전제로 할 때는 아무래도 학생과 제주어 교육을 담당할 교육자이며, 대중매체(지역 신문, 방송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점은 제주어 교육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제주어가 표준어에 비해 하위 언어이며 저급한 언어이며 품위 없는 언어라는 그릇된 언어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표준어는 표준어대로 제주어는 제주어대로 각각 별개의 언어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다. 다만 표준어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주어 교육에 임해야 하며 왜 제주어 보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순덕(2010가)에 의하면 제주어의 보전정책으로는 ‘제주어의 위상 정립, 제주어 활동가 양성, 제주어 교육 환경 조성, 제주어의 기록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역할 제고로는 ‘전문가 집단,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역할을 들었다.

또한 제주방언의 보전 및 파급 전략으로는 홍보와 확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제주어경연대회 활성화, 제주문화자원에 대한 제주어의 기록화 등을 들고 있다.

제주어가 얼마나 귀중한지는 이미 국어학자들이 증명해 주었으며, 지금은 이 사실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제주어에 남아있는 중세국어 어휘 몇 가지를 보면 제주어 ‘남, 낭’은 표준어 ‘나무’에 해당되며 중세국어 ‘나모’의 어형이 남아있다. 즉 ‘나모’가 격조사와 결합하여 ‘남기’가 되고 이때 ‘남’ 어형은 지금도 제주어 화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제주어 ‘굼기’는 노인층에서 간혹 들을 수 있는 어휘로 지역에 따라 ‘굼기, 고냥, 구녕, 고망’ 등으로 쓰인다. 중세국어로는 ‘구무’이며, 여기에 격조사가 결합하면 ‘굼기’가 되는데 중세국어 ‘굼기’가 제주어에 살아있는 것이다. 제주어 ‘일름’은 표준어 ‘이름’에 해당되며, ‘일흠’도 쓰이는데 이는 중세국어 ‘일흠’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현대국어 ‘이름’으로 변화하는 중간단계로 본다.

또한 중세국어 ‘감저(甘藷)’가 제주어 ‘감저/감제’로 그대로 살아있고, 표준어로는 고구마에 해당된다. 중세국어 ‘딤치’는 ‘짐치’로 변했다가 현대국어에서 ‘김치’가 되었지만, 지금도 제주어 화자들은 ‘짐치’라 한다. 따라서 ‘김치’의 어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역어가 선택되는데 음식용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중세국어 ‘구루, 푸래, 누뿔’ 등이 지금도 제주어로 자유롭게 쓰이고 있는 것도 단적인 예이다.

4. 마무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공통어인 표준어를 제정했으며, 온 국민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어는 동일한 지역어권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지역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상호, 음식명, 상표 등이 제주어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주어 관련 행사, 민간단체 중심으로 보존에 대한 노력 등이 제주어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특히 IT기업에서 ‘제주어사전, 제주어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등 제주어가 스마트폰(제주 의소리, 2011. 3. 16. 기사 참조)에서 활보하는 시대가 도래되어서 제주어의 생명은 영속될 것이라 믿는다.

어떤 지역어가 소멸되는 것은 전국, 세계적인 현상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무형의 언어도 유산으로 남겨두기 위해서는 채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주어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주어의 소멸 원인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보존과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

참고문헌

- 문순덕(2008), “제주어의 문화정책 방안”, 『제주발전연구』12,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2010가), “제주방언의 보전 전략”, 『영주어문』19, 영주어문학회.
- 문순덕(2010나), 『섬사람들의 음식 연구』, 학교방.
- 문순덕(2011), “제주 구비문학에 나타난 제주방언의 문법연구”, 『영주어문』21, 영주어문학회.
- 현평효 외(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